

협회 소식

제7차 이사회 개최



협회는 지난 11월 13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 토파즈룸에서 신훈 회장을 비롯해 객정환 부회장(대동주택 회장), 경제용 부회장(동문건설 회장), 윤오수 상근부회장 등 협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대지 95% 이상 사용권원 보유 시 잔여 대지 소유자에게 예외 없이 매도 청구가 가능하고, 80~95% 미만 사용권원 확보 시 잔여 대지에 대한 매도 청구가 가능토록 개선된 주택법 개정 내용과 한·베트남 부동산협회의와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 각서 체결과 현장 시찰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한편, 임원들은 공동 주택 하자 보수 보증금 산정 방식이 사업 주체에게 과도한 자금 부담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공공택지 대금 선납 시 기간 이자도 3년 만기 회사채 유통 수익률을 적용하고, 적용 기간도 납부일로부터 입주 시점까지로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회를 마친 후엔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2008년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8년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 해소 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주택 수요 정상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 주택 교체 수요를 위한 금융 및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영홍보위원회 개최



협회는 지난 11월 20일, 서울 논현동 협회 회의실에서 봉희룡(한화건설 상무)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홍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홍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최근 주택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수세 둔화와 거래 감소

소로 인해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의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향후 주택 건설 실적은 과거에 비해 감소할 거라고 보고했다. 또한 협회는 대지 95% 이상 사용권원 확보 시 잔여 대지 소유자에게 예외 없이 매도 청구가 가능하고, 80~95% 미만 사용권원 확보 시 잔여 대지에 대한 매도 청구가 가능토록 개선된 주택법 개정 내용과 주택형별 최고·최저·평균 점수를 공개하는 주택 청약 가점제 당첨 결과 점수 공개 기준 개선 내용 등을 보고했다.

회원사 소식

금호건설, 패션 디자이너와 아파트 디자인 제휴



금호건설(대표이사 이연구)이 이상봉 패션 디자이너와 손을 잡는다. 앞으로 지어지는 금호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어울림과 주상복합 브랜드 리첸시아를 이상봉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것이다.

내년 1월 분양 예정인 리첸시아 중동에 이상봉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금호건설은 1차적으로 리첸시아 중동의 현관문과 포인트 벽지에 적용키로 했으며, 추후 지속적 협의를 통해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는 이른바 '데카르트' 마케팅으로 불린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철학자 데카르트를 떠올리지만, 데카르트는 기술(Technology)과 예술(Art)을 합친 신조어다. 일반 상품에 예술적인 요소를 결합해 기능성은 물론 소비자의 감성까지 충족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호건설은 휴대폰, 가전 제품 등 일부 상품에 국한되었던 데카르트 마케팅이 아파트 공간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호건설 이연구 사장은 "점점 높아지는 고객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주거 공간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아름다운 놀이터' 캠페인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E&C 리더'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창규)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놀이터' 보급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지난 10월 25일, 대우건설 김안석 부사장, 박주원 안산시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건설 '아름다운 놀이터'의 첫 사업인 와동 시립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 개장식을 가졌다. 대우건설의 '아름다운 놀이터 캠페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안전 사고 예방과 저소득층 아동들의 청결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낙후 지역이나 아동 복지 시설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회 공헌 사업이다. 대우건설의 '아름다운 놀이터 캠페인'은 놀이터 리모델링과 안전 가이드 패키지 보급으로 진행되며, 놀이터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되고 위험한 놀이 기구에 대한 보수와 철거, 어린이들의 지능 개발과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놀이 기구 설치, 안전한 고무 바닥 포장, 안전한 울타리 설치는 물론,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아름다운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 안내판, 놀이 기구별 사용 연령 표시, 정기적인 자원 봉사를 통한 안전 관리 및 지도 등의 안전 가이드 패키지 보급으로 손상되고 오염된 놀이터를 보수해나감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놀이터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 필리핀에서 '사랑의 집 짓기'



삼성물산(사장 이상대) 건설 부문이 필리핀 파사이 시티에서 펼쳐진 '사랑의 집 짓기-해비타트'에 참가해 주택 건립을 지원하고, 열악한 현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의 손길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해비타트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전세계 모든 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봉사 활동이다. 삼성건설은 2000년 해비타트에 처음 참여해 국내에서는 광양, 아산, 강릉, 천안 등지에서 총 211가구의 건립을 지원했다. 2003년부터는 미국,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등 해외로 봉사 활동을 확대해 매년 임직원들을 파견하고 있다. 이번 봉사 활동은 필리핀 마닐라 인근의 파사이 시티에서 진행 중인 '글로벌 빌리지' 건설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임직원 및 협력 업체 직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됐다.

신일건설, 창립 50주년 '신일그룹으로 새출발'



신일건설(회장 홍승극)이 지난 25일, 본사 강당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신일그룹 출범식을 갖고 탄실한 재무 구조와 인적 자원의 정예화를 토대로 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재도약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관계사인 (주)마승산업, (주)선준실업, (주)유도힐개발, 유토빌개발, (주)준희 등과 복지 법인 다사랑 임직원을 비롯한 협력 업체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홍법식 부회장은 "창사 이래 50년간 건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들의 믿음과 관심, 임직원들의 노고에 따른 것"이라며 "신일그룹으로 새롭게 태어난 회사가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일건설은 이날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통해 임직원들의 연봉을 2배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앞으로 우수 인력 발굴과 인재 육성에 모든 역량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쌍용건설, 창립 30주년 社史 발간

쌍용건설(회장 김석원)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사사(社史)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쌍용건설 30년사>에는 지난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로 워크아웃의 시련을 겪고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으로 5년 8개월 만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까지의 과정 등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특히 화보 '종업원 지주 회사 변신기'에서는 2003년 회사 정상화를 위해 직원들이 퇴직금을 털어 유상 증자에 참여하는 등 종업원 지주 회사의 기틀을 마련해가는 과정을 콘트 형식으로 소개해 눈길을 끈다. 총 676쪽 분량으로 이루어진 쌍용건설 사사는 '통사'와 '화보' 2권으로 구성됐다. 한편, 쌍용건설은 최근 창립 30주년을 맞아 '최고의 공간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파트너'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오는 2015년까지 ▲국내 톱 7 건설사 재진입 ▲수주 9조 원 ▲매출 7조 원 ▲영업 이익률 7%를 기록하는 '7977' 전략을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진흥기업, 새 아파트 브랜드 '더 루벤스' 선포

진흥기업(대표이사 전홍규)이 아파트 브랜드를 "더블파크"에서 '더 루벤스(THE RUBENS)'로 바꾸고 재도약에 나섰다. 진흥기업이 이렇듯 브랜드를 변경한 것은 지난 2003년 브랜드를 선보인 이래 브랜드로 차별화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흥기업의 더 루벤스는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유명 화가인 '피터폴 루벤스'의 이름으로, 바로크 시대의 품격 있는 자연스러움을 아파트에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브랜드로 결정, 앞으로 고품격 아파트 공급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진흥기업은 주택 브랜드 더 루벤스 외에도 주상복합 '마제스타워', 단독 주택 브랜드 '아마란스' 등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진흥기업은 올해 전국에 걸쳐 작년보다 70% 늘어난 총 5119가구를 공급하고, 매출액도 작년 4800억 원보다 20% 증가한 60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 올해 영업 이익 316억 원, 경상 이익 180억 원, 신규 수주 1조 원을 경영 목표 삼는 등 오는 2010년 톱 30위권 건설사로서의 도약에 매진키로 했다.



THE RUBENS

진흥 더 루벤스

현대산업개발, 기업·브랜드 홈페이지 분리 오픈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정중)이 기업 홈페이지(www.hyundai-dvp.com)와 'PARK' 브랜드 홈페이지(www.i-park.com)를 분리하는 등 리뉴얼된 새로운 홈페이지를 선보였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작업을 통해 현대산업개발과 'PARK'의 심볼인 영어 이니셜 'I'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강화했으며, 기업 홈페이지와 브랜드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고, 메뉴 구성도 개편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투자자들과 'PARK' 고객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새로 오픈한 기업 홈페이지에서는 경영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으며, 브랜드 홈페이지에서는 분양 관련 콘텐츠와 웹진의 콘텐츠를 강화해 'PARK'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한편,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월1회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홍보팀의 이광석 상무는 "이번에 실시한 리뉴얼 작업을 통해 고객들과 투자자들 모두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고, 분양 정보 제공과 웹진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함과 동시에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 온라인에서도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C&우방, 나눔 경영 실천



C&우방(대표이사 박명중)이 사회 복지 시설 및 문화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이윤을 이웃과 나누는 나눔 경영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C&우방은 지난 10월부터 두 달 동안 대구 중구 북성로1가에 위치한 소외된 여성들의 보금자리인 '소망의 집'에 대한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깨끗하게 단장된 건물을 22일 입주자들에게 공개했다. 이번에 C&우방이 보수를 마친 소망의 집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원(원장 송화섭)이 지난해 1월 여관으로 사용해오던 건물을 기증받아 소외받은 여성들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몸을 의탁하는 사회 복지 시설이다.